

디모데 후서 강의

목회란 무엇인가? 어떤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 켄트 휴즈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인가? 라는 책의 서문에서 신학교에서는 해마다 밝고 활기찬 목회자들을 배출해 내지만 그들이 세속적인 성공에 유혹되어 실 패감으로 매년 수천 명 씩 목회의 자리를 떠난다고 말한 대로 목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목회자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거창하게 목회란 이런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경륜이나 경험도 없고, 평생 사역을 통해 이루어 보겠다는 뚜렷한 비전도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 우리들의 사역의 현주소를 한 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어 보도록 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무조건 교회 성장을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신다고 전제하고 사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란 어떤 것일까를 가지고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테니까.

바울의 생애와 서신

사 건	연 대	기록한 서신들
바울의 회심	약 35년 경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의 사역	35-37년(3년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37년	
다소에서의 사역	37-46년(10년간)	
안디옥에서의 사역	46-47년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47년	
제 1 차 전도여행	47-48년(2년간)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49년	
제 2 차 전도여행	49-51년(2-3년간)	데살로니가전후서(종말론적)
제 3차 전도여행	52-57년(4-5년간)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구원론적)
가이사랴에서의 수감생활	57-59년(2년간)	
로마에서의 수감생활	60-62년(2년간)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교회론적)

그 이 후의 사역	62-64년(2-3년 혹은 4-5년간)	디모데전서, 디도서(목회적, 혹은 개인적)
제 2차 로마에서의 수감생활	64년 혹은 67년경	디모데후서 (개인적)
바울의 죽음	64년 혹은 67년경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디모데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은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에서였다(행16:2). 하지만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 때 회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갔을 때 디모데는 젊은 청년으로 칭찬받는 신앙인이었다(바울이 전도여행에 그를 동행시켰고, 그가 즉각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주 어린 소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헬라인 아버지와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그는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심한 당시 교회의 상황에서 교회의 사역자로는 적임자였는지도 모른다. 바울은 그와 동역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심한 갈등구조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갈2:3]). 제 2차 전도여행 후에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동행했다. 제 3차 전도여행 때에도 바울과 동행해서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역을 맡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디모데는 동행했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연금이 해제되고 난 후 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디모데를 아마도 에베소로 보낸 것 같다. 거기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서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끔찍이 사랑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고(딤후1:2), 사랑하는 아들(딤후1:2)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디모데는(아마도 그의 나이가 어려서였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바울이나 실라와 같이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던 사역자는 아니었다.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말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한다(딤후1:8). 디모데는 말년에 핍박을 받고 옥 생활을 한 것 같다(히13:23). 옥 생활을 하는 고행이 곧 경건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타협을 하지 말라는 말이고 타협을 불허함은 곧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은 어떨까?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난이 불가피한 세상일까 아니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일까?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달라 보이기기는 하지만(그래서 유흥과 시련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무대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긴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은혜의 사람이 되라

30년 이상 일선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신학자로, 교회 개척자로 사역을 한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사역을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바울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을 디모데에게 그리 많이 하지 않는다. 디모데 전서에도 후서에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거나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는 물론 디모데가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곁에서 보면서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닌 자세 혹은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즘은 자세나 마음가짐이 아닌 방법을 전수하려고 하고 전수 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성과로 결정하는 실용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을 존경하던 디모데에게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하면서 바울이 전수하는(?) 비결은 복음의 은혜였다. 바울에게는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가 라든지,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관한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 테니까. 그럼에도 디모데가 바울을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물을 수 있었던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으리라. 바울은 어쩌면 이 질문을 전제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며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1. 믿음과 선한 양심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단순히 도덕적, 혹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갖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목회서신에서는 -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문화적, 혹은 전통적 관습에 의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지만[고전10:23-29]). 양심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양심을 본유적인 도덕적 본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적 마음상태라고 보기도 한다. 바울은 양심을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반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은 외식적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즉 고백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달리하는 사람이다(딤후4:2). 양심이란 도덕적 본능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한 후에 삶 속에 나타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말한 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딤후1:5)이라고 부른다. 디모데는 바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양심을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결함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은 없었다는 말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행위의

청결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바울은 사역자의 자세로 선한 양심, 혹은 청결한 양심을 강하게 권고한다.

도덕적 완벽함과 진실함이 다른 것이라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로 진실함의 가치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을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에 진실한 사람일 것이고 그는 바로 그 고백의 진실함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진실한 고백에는 할 수 없는 죄인 됨도 함축되어 있을 테니까.

2. 은혜의 감격

바울이 은혜에 감격한 사역을 했다함은 그의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감정의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를 더 많이 의미하지 않는가! 은혜가 가지는 의미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그런 용법이 틀렸다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은혜는 아니었다. 또한 은혜를 말하면서 거저주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은혜의 초점은 공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 있다. 거저주신 것이지만 은혜의 감격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심에 있다는 말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은혜에 감격한 삶과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가를 말하지 않고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며 살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사역을 가능케 한 힘이었음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신앙고백이다. 몇 군데에서 바울은 이 고백을 했지만 잘 알려진 두 구절만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디모데전서 1:12-20

- a) **충성되이 여겨:**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사역을 맡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 것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라"는 의미이다(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의 잠재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말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보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자들이 맡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를 위한 직분은 다양하다.
- b)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일까?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을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 그를 지탱해주고 붙들어 주었던 능력이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세상의 이치와 답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본유적으로 소유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 c) **내가 죄인의 죄수라:**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깊어져서 자신이 누구보다 큰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죄인인가? 모두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함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의 죄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지 않고 과거의 그의 행위를 말한다. 원래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휘방자로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모를 때 하던 짓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런 사역을 맡기셨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 d)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한다. 이도 역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2) 디모데후서 1:9-14

- a)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다:** 과거에 그는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도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은혜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뜻)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가능해지도록 한 그것이다.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절망상태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중간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
- b) **고난을 받되 고난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것은 그가 의뢰한 자를 알기 때문이고 그가 의뢰한 것을 그 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꺼이 고난을 당하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고 순전히 복음이 원인이 되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은 놀릴 수 있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가

의뢰한 자를 알기 때문이다. 고난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고난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을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고난당하지 않기만을 구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일부러 힘든 길을 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복음적 삶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라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경을 다스리라: 물론 충성스러운 신자로서는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려고 한다. 필요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여전히 행위의 결과로 생각하는 누를 범하기 쉽다. 어느 때는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견디며 참고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 특히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의 이 권면은 디모데의 사역이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 의뢰한 자는 완료형이다. 즉 의뢰해온 자라고 번역함이 옳다. 헬라어에서 완료형과 현재형의 용도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과거의 행동의 결과로 인한 현재의 상태를 말할 때 완료형을 쓴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 왔음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바울이 그래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고백일 것이다.

- 3) 따라서 은혜의 사람이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다.

